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협력소장

# 유재석의 육계사양관리 핵심포인트

## 12월

### 겨울철의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

양계장에서 육계사육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양계장이 거의 밀폐된 상태에서 사육을 하게 됨으로써 계사내부와 외부환경의 온도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 관리측면에서도 다른 계절보다도 전기 사용량과 열풍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시기이다.

또한 겨울철은 자주 내리는 눈과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번 달에는 필자가 그동안 농장관리를 하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알아보고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1. 누전에 의한 정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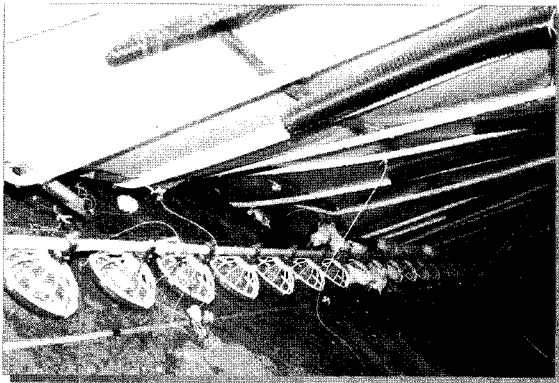
누전에 의한 정전사고가 가장 많고 이런 사고의 발생시기는 보통 30일령 넘어 출하 1~2일전에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절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시간은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계사는 단열이 열악한 무창계사나 완전 밀폐된 개방계사, 환기량이 부족해서 계사내부의 습도가 많은 계사, 그리고 누전차단기가 계사내부에 설치된 계사들이 주로 발생한다.

야간에 누전으로 정전이 되면 행이 작동되지 않고 결국 정전 후 1시간이 지나면 6%정도 폐사되고 2시간 정도면 18% 정도, 3시간 지나면 40% 정도, 4~5시간 지나면 80% 정도가 폐사된다(폭 10m, 길이 65m인 200평의 보온덮개 계사에 10,000수를 입추했고 35일령 중량 1.61

kg의 경우임).

직접적인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은 계사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워서 닭이 죽고 두 번째가 산소부족으로 죽는다. 출하직전에 사고발생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피해가 크다.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누전차단기를 각 동별로 따로따로 설치하고 계사 외부의 환기가 잘되고 건조한 곳에 설치한다.
- 2) 행의 전선은 별도로 연결하고 전구, 급이, 급수, 열풍기 등의 전선연결은 따로 설치한다.
- 3) 정전시 관리사에서 비상벨이 울릴 수 있도록 설치한다.
- 4) 출하 5일전부터 특히 환기를 철저히 해서 계사내부가 습하지 않도록 한다.



폭설로 인한 계사붕괴

- 5) 계사외부에 대표전등을 설치하여 정전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 6) 출하직전에는 2~3시간 사이로 양계장을 순회한다(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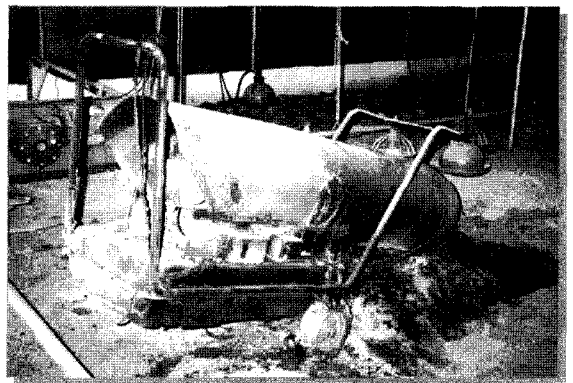
## 2. 열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이 사고는 주로 입추시에 발생하는데 때로는 겨울철에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후반기때 열풍기가 과도하게 작동되면서 과열로 폐사가 발생한다.

주로 단열이 열악한 개방계사에서 겨울철에 보온덮개와 비닐로 밀폐된 육추실에서 육추실 온도를 3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작동되면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다.

이 사고는 거의 직접 열풍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며 특히 열풍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발생한다. 반드시 간접 열풍기를 권장하며 부득이 직접 열풍기를 사용시는 개방계사에서는 10,000수 입추시 50,000kcal짜리 4개 정도를 사용하거나 100,000kcal짜리 2개를 사용해야 열풍기 과열을 막을 수 있고 무리하지 않고 3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주로 새벽에 발생하며 피해가 매우 크다. 열풍기 과열문제는 양계장의 단열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열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 3. 폭설로 인한 계사붕괴

이미 2000년 1월초에 많은 농장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겨울철의 폭설은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자주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시설이 잘된 신축계사야 문제가 안되지만 재래식 계사는 항상 폭설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여름철에 더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사 지붕에 설치한 검은 그늘막을 반드시 제거하던지 그 위에 두꺼운 비닐을 씌워서 눈이 와도 쌓이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다. 또한 계사 중앙에 3m마다 한 개씩 기둥을 만들어 받쳐줄 수 있도록 한다.

## 4. 그밖에 가끔씩 발생하는 사고들

- 1) 계사진입로가 좁거나 결빙되어 입·출하시 차량 전복으로 인한 안전사고
- 2) 입추당일 육추실 열풍기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동사) - 여분으로 2~3개 구비
- 3) 출하당일 상차작업시 포획 미숙으로 인한 압사 - 전문 상차반에 의뢰
- 4) 입추당일 열풍기 앞에 병아리 상자를 쌓아놓아 폐사되는 사고 C